



#. 서울캠퍼스(서울캠) 제50대 총학생회(총학) 재선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정기선거와 지난 3월 재선거가 연거푸 무산됨에 따라 서울캠은 10년 만에 5월 재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에는 ‘커넥트(KHU:NNECT)’ 선거본부(선본) 만이 출마해 단선으로 치러진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제50대 총학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열림’ 선본이 당선됐다. ‘열림’ 선본과 ‘동행’ 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열림 선본 김효형(일본어학 2011) 정후보와 심자용(화학공학 2015) 부후보가 총 투표자 5,030명 중 66.9%(3,368명)의 득표로 당선됐다.

이에 서울캠 제50대 총학 선거에 출마한 ‘커넥트’ 선본 송태현(경영학 2014) 정후보,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 부후보의 공약을 들어봤다. 또한 국제캠 제50대 총학이 5개월의 임기동안 학생의 지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약을 점검했다.

# “놓치고 있던 우리 권리 찾아야”... ‘커넥트’ 단선 출마

서울캠퍼스 후보 인터뷰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서울】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처음으로 5월에 제50대 총학생회(총학) 선거가 진행된다. 단선으로 출마한 ‘커넥트(KHU:NNECT)’ 선본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정기 선거에서 쿠토피아 선본 부후보로 출마했던 송태현(경영학 2014) 정후보와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 부후보의 조합이다. 선본명인 커넥트는 무엇이든지 ‘연결할 수 있는’ 총학이 되겠다는 이들의 다짐이다.

커넥트 선본은 공약을 어제·오늘·내일 세 가지로 구분했다. “어제는 고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를 재정비하는 공약이고 오늘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복지 공약, 내일은 경희라는 이름 아래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어제’ 공약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던 권리를 되찾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대학본부와 연계해 행정부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태현 정후보는 “경희음부즈 민원 통계에서 행정민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노동조합 또한 평가제도 도입으로 윤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주인 학교의 평가 뿐 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평가도 반영하게 된다면 동기부여가 되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험, 과제 점수 의무 공개 제도 도입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송 정후보는 학생들을 교육 서비스를 받는 주체로 상정하고 “교수마다 성적을公示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교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감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의평가를 먼저하고 성적을 공개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주체가 돼 스스로 필요에 의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황규리 부후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총학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체계적인



왼쪽부터 ‘커넥트’ 선본의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 부후보, 송태현(경영학 2014) 정후보

기반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출된 사람에 따라 역량이 달라지는 총학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얘기다. 총학의 체계를 잡기 위해 총투표를 통한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 공약도 포함됐다. 현재 총학생회칙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없을 뿐 더러 ‘관계적으로 처리한다’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표현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송 정후보는 “상위법으로서 작용하는 총학생회칙이 체계적이지 않아 각 단과대학회칙과도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학생들 또한 회칙을 개정하며 누려야 하지만 누리지 못했던 권리에 대해 한번쯤 상기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칙 정비와 함께 중앙특별기구의 재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권복지위원회 등 서류상에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기구들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여 매년 달라지는 자치화비 분배 비율을 고정하겠다는 것이다. 송 정후보는 총여학생회와 후마니타스칼리지대학생위원회 등 총학 산하 기구가 아닌 특별자치기구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총장선출제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송 정후보는 “우리학교에 가장 적합한 제도는 무엇일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학평의원회 기존 의결은 당연히 존중하겠지만 새로운 학생대표가 탄생한다면 의견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물론 당장의 선거에 학생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4년 뒤 차차기 총장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인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직선제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커넥트 선본은 “학생들이 학생자치를 포함한, ‘내가 속한 집단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선행하면 직선제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공약은 학생들이 직접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복지에 집중한다. 시행주체만 다른 비슷한 복지 공약을 재정비하고 하나의 통합된 부서에서 진행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커넥트 선본은 입학금을 ‘본래 학생을 위

한 예산’이라고 칭하며 이를 이용해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보수 또는 흡연 구역 설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일’ 공약은 ‘브랜딩’으로 설명된다. 총동문회와 함께 학교 홍보 영상 제작 및 장단점을 분석해 브랜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이를 위해 총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동문’과 함께 진행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송 정후보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는데 학생들과 너무 떨어져있어 어떻게 도움을 줄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았다”며 “총동문회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학교의 발전 방향이 비슷하다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임기가 짧아 비례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는 우려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으며 준비를 한지 거의 1년이 되가는 것 같다”고 답한 송 정후보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총학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황 부후보는 “총학이 학생들 곁에 있어 든든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며 “총학에 대해 관심이 없던 학생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 학생복지는 ‘우수’, 기숙사 공약은 ‘미지수’

국제캠퍼스 총학 공약점검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국제】 66.9%의 득표율로 당선된 국제캠퍼스(국제캠) 제50대 총학생회(총학) ‘열림’이 출범으로부터 5개월이 지났다. 당초 열림 선본은 공간 문제 해결, 이원화 문제 논의 등 그간 국제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학생복지와 취업프로그램 증설, 교내 환경 개선 등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열림 총학의 공약 이행을 살피었다.

열림 선본의 핵심 공약은 전 단과대학 리모델링, 산학협력관 착공 등 공간 관련 공약과 기숙사비 인하였다.

총학은 ‘소통위원회(소통위)’를 통해 학교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소통위는 등록금재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등록금과 관련된 논의에서 벗어나 학교와 총학이 학내 사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지난 3월 진행된 1차 소통위에서는 외국어대학 리모델링 일정을 논의했다. 본래 계획인 2017학년도 동계방학보다 늦긴 했으나 오는 하계방학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단과대학 리모델링의 자세한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산학협력관은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학과 학교는 산학협력관의 순조로운 신축을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갈 예정이다.

기숙사비 인하 요구 공약은 올해 안에 해결되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기숙사 공실을 교수 연구실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 역시 시행이 요원하다. 지난 소통위에서 총학은 우정원 상가 공실을 학생 공간으로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정원의 운영권은 우리학교가 아닌 GS건설에 있다. 기숙사비 인하나 공간 활용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선 먼저 운영권을 우리학교로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에산팀 강성원 계장은 “단기간에 인수인계를 받는 것에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기 이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로써 우정원 운영권을 올해 안에 이관받지 않으며, 우정원 기숙사비 인하 또한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GS건설은 2019년 2월까지 우정원 운영권을 행사한다.

우정원 운영권이 우리학교로 이관되면 낡은 시설을 개·보수해 교수연구실, 테크노경영대학원·평생교육원·언어교육원 전용 강의실로 사용할 예정이다.

총학 김효형(일본어학 2011) 회장은 “학교의 우정원 운영권 인수와 산학협력관 진행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며 “다음 소통위나 2학기 때 다룰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제캠 총학 공약 이행 목록

1	‘경희 열린 학운위’ 개최
2	모니터게시판 설치, SNS소통 창구 재정비 등 소통 강화
3	설국버스 증차 및 저조한 노선 시간대 변경
4	기업 제휴 할인 및 행사 개최 등 학생복지
5	소통위원회 개최
6	오픈랩 확장 및 중앙도서관 열람실 환경 개선
7	교내 안전 취약 지역 가로등 교체 및 추가 설치
8	강의 계획서 게시물 향상 방안 논의
9	취업프로그램
10	총학 내 재정 담당 부서 추가 신설

학사제도 개선 공약은 2차 소통위에서 논의됐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관련 부서와 합의할 예정이다. 이달 내로 ‘강의 매매 방지’를 위한 수강신청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학사지원과, 정보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후마니타스칼리지와 간담회를 통

해 수강신청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이 원하는 강의 개설, 평가 방식 변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큰 공약이었던 공간 문제 논의가 다소 지지부진한 것과 달리 학생복지, 그리고 취·창업 프로그램은 활발히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식사업, 기업 제휴할인, 공동구매와 같은 이벤트성 복지 행사도 많이 진행됐다. ‘봄날의 경희’, ‘경희체전’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캠퍼스 간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요청이 많았던 ‘설국버스’ 증차도 이뤄졌다. 국제캠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으로 가는 버스와 서울캠에서 국제캠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각각 2대씩 증차됐다.

활발한 취·창업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생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열림 총학은 산하에 취·창업 프로그램 전담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취·창업 프로그램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월 ‘퍼스널브랜딩’ 취업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 개시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2학기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서 김 회장은 “단순히 공약을 이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을 위한 공약 외 다양한 활동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학기에는 캠퍼스이원화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취·창업 박람회 등 아직 이행하지 못한 공약 이행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